

일본의 188순교자 시복식
2008년 11월 24일 나가사키(長崎)에서



그림 : 사쿠마 다케시(佐久間彪)신부

2008 가톨릭 도쿄(東京)대교구

일본 그리스도교의 시작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1549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가 처음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하비에르 성인은 2년 정도만 일본에 체류했었지만, 그 뒤, Cosme de Torres, 라우렌시오 료우사이(了齋) 그리고 Luis de Almeida와 같은 예수회 수사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야마구치(山口) 및 큐슈(九州)각지에 교회나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방호족, 무사들, 일반민중에게 점점 더 퍼져 나갔습니다.

1579년, 예수회 감찰관 Alessandro Valignano신부가 일본에 와서, 일본인 사제양성을 추진하기로 결정, 소신학교와 대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일본 크리스찬 귀족의 사절로 일본인 소신 학생을 로마에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년 사절 중 나카우라(中浦) 율리아노는 사제가 되어 순교합니다. 그는 이번에 복자품에 오릅니다.

성 바오로 미키(三木)와 동료순교자들 (일본의 26위 성인)

16세기 후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일본을 거의 통일하였지만, 그 전에 사망하게 되고, 이어 일본의 통일을 완수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87년, 가톨릭선교사를 국외로 추방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는 외래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일본의 국가통일을 방해한다고 판단했기때문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1597년에는 히데요시(秀吉)의 명으로 나가사키(長崎), 니시자카(西坂)에서 예수회 사제 바오로 미키(三木)와 프란치스코회 사제 페드로 바우티스타(Pedro Bautista) 등 26명의 가톨릭 사제와 평신도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중 일본인은 20명으로, 스페인인이 4명, 포르투갈인이 한명, 그 외 멕시코인인 Felipe de Jesus가 있었습니다. 이 26명은 1862년 교황 비오9세에 의하여 성인품에 올랐습니다.(일본에서의 축일은 2월 5일입니다.)

에도(江戸)시대의 박해와 순교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박해가 본격화 된 것은,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에도(江戸 : 지금의 도쿄)에 막부를 세우면서부터입니다. 그 즈음 일본의 가톨릭 신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에서 순교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수 만명에 이

르며,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교 박해는 역사상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 가운데에서 1867년에 205명이 복자품에 올랐는데, 1622년 나가사키(長崎)에서 순교한 55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도미니코회의 토마스 니시(西)와 15명의 순교자가 1987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오릅니다. 여기에는 필리핀인 성 라우렌시오 루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타 줄리아와 하라 몬도(原主水)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시대에 일본에 끌려가, 그리스찬 귀족이었던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집에서 자란 한국인 오타 줄리아는, 이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시녀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열심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유명하였습니다. 1612년, 이에야스(家康)가 자신의 식솔 중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을 때, 그녀는 이것을 거부하여 이즈(伊豆)섬으로 귀양가게 됩니다. 같은 때 이에야스(家康)의 직속 무사였던 하라 몬도(原主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 결국 모든 지위를 잃고 처형됩니다. 1623년,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의 후다노츠치(札の辻)라는 곳에서 50명의 그리스도교 신자가 집단으로 처형당할 때 같이 순교한 그는, 이번 복자품에 오르는 이들 중 한 명입니다. 하라 몬도(原主水)는 치바현(千葉県) 사쿠라시(佐倉市) 臼井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 키베(岐部)와 187순교자의 시복

2008년 11월 24일, 베드로 키베(岐部)와 187명의 순교자의 시복식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열립니다. 이 188명은 에도시대 초기의 일본 각지의 순교자들입니다. 일본의 교회는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순교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여, 드디어 이 188명의 시복을 실현합니다. 이들은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広島), 오사카(大阪)와 큐슈(九州)각지의 순교자들이며, 교토(京都)의 52명은 1622년에, 야마가타현(山形県) 요네자와(米沢)의 53명은 1629년에, 각각 함께 순교한 그룹입니다. 그들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도쿄(에도)의 순교자로서는 하라 몬도(原主水)외에, 베드로 키베(岐部)신부(예수회)가 있습니다. 그는 188명 중 마지막

순교자로, 1638년에 도쿄의 아사쿠사(淺草)에서 순교하였습니다.

188명 중 많은 이가 평신도입니다. 사제가 국외로 추방당해, 거의 없게 된 상황에서 교리와 기도, 애덕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겨온 평신도 가족이나 공동체가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4명의 사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삼엄한 수색을 피해 일본 국내에 잠입, 계속 숨어 다니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 봉사한 “착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일본 교회의 재출발

250년간의 에도시대를 통하여 나가사키(長崎), 고토(五島)등 큐슈(九州)북부의 각지의 가톨릭 신자는 은밀히 신앙을 지키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19세기에 일본이 개항되어 파리외방전교회의 신부가 일본을 방문, 1864년에 나가사키(長崎), 오우라(大浦)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나가사키(長崎), 우라카미(浦上)에 숨어있던 가톨릭 신자의 자손이 나타나,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가톨릭 사제와의 극적인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일본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교회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복식을 맞이하여, 일본의 가톨릭 교회는 400년전의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것”, “사랑을 갖고 살아가며,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